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5.04.08.(화) 11:00 < 4.09.(수) 조간 > 배포 2025.04.08.(화)

지방투자기업 13개사에 485억원 지원

- 민간투자 유치 2,874억원, 지방일자리 455개 창출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올해 제1차(1~3월)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심의 결과 13개 지방투자기업에게 485억원(국비 303억원)을 지원하여, 총 2,874억원의 지방투자 유치 및 455개의 지방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,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지방에 신·증설하는 지방투자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(4~50%)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.

이번 지원대상 기업은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방이전(대전) 1개사와 지방 신·증설 12개사(충남, 충북, 전북, 경남)이며, 업종별로는 반도체 1, 조선업 1, 항공수리업 1, 자동차 5, 식품 3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.

<업종별 지원현황(국비기준)> (단위: 개,백만원)

구분	반도체	조선업	항공수리업	자동차	식품	기타	계
지원기업수	1	1	1	5	3	2	13
보조금	754	564	918	13,597	3,371	11,057	30,261

산업부는 매년 4회의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, 수도권 지방이전 및 지방 신·증설 등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(신청)를 통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.

담당 부서	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	책임자	과 장	김봉석 (044-203-4420)
		담당자	사무관	강윤구 (044-203-442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「지방투자촉진보조금」 지원제도 개요**

□ **(개념) 기업**의 **지방투자**(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및 지방 신·증설 투자)에 대해, **투자액**의 **일정비율**(4~50%)을 **국비·지방비 매칭**으로 **지원**하는 보조금

○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시 토지매입 가액의 일부(입지보조금)와 설비 투자금액의 일부(설비보조금)를, 지방신·증설 투자시 설비보조금을 지원

* 예산액(억원) : ('22) 1,922 → ('23) 2,031 → ('24) 2,126 → **('25) 2,261**

** 지원근거 :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4조, 시행령 제23조, 지투보조금 지원기준(고시)

<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 비율 >

지원비율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매칭비율 (국비:지방비)
균형발전 상위지역	- (설비) 4%	(입지) 5% (설비) 6%	(입지) 9% (설비) 8%	45 : 55
균형발전 중위지역	- (설비) 6%	(입지) 15% (설비) 8%	(입지) 30% (설비) 10%	65 : 35
균형발전 하위지역	- (설비) 9%	(입지) 25% (설비) 12%	(입지) 40% (설비) 15%	75 : 25
산업위기 대응지역	- (설비) 12%	(입지) 30% (설비) 20%	(입지) 50% (설비) 25%	75 : 25

* 보조금 국비 지원한도 : 투자건당 150억원, 기업당 200억원

□ **(지원절차)**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기업 유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,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결정

<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진행 절차 >

